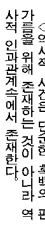


가려진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개
대
적
가
것
· 3
순
주
교

그
은
저
의
아
짜
에
건

차별과 억압의 현실 여전
정치참여 활성화 마련 돼야

“여성성동의 10년사 동안 가족법, 남녀평등고용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방지법 등을 개선하기가 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여 법제화하는 데 공헌했다”고 강조하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보내야 한다”며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주장했다.

한편 지역살림에 대한 외장 활동을 전개하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기반의 확대를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하게 된 홍미영(인천시 북구 의원)

한편 지역살림에 대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기반의 확대를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하게 된 홍미영(인천시 북구 의원) 씨는 "우리 모두는 서로간에 나누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며 여성이선 20% 활동을

이날 대회는 가수 양희은, 양혜경씨를 비롯하여 중창단 '하늘 새땅'의 축하노래, 김지희씨의 모노드라마, 민우회 어린이 노래단의 노래가사 비평가 박기흥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있었으며 취재진의 열띤 취재활동 속에서 잡내의 분위기는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2만 여성에게 드리는 글'의 낭독에서 이영순(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씨는 "아직도 우리 2만 여성들 앞에는 차별, 고령 불안정, 성폭력 등 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될 역사 조명해야

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건들은 그 역사적 진실과는 상관없이 한국 현대사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언급해서는 안될' 역사와 친척 뿌리기로 내몰렸으며, 단순한 공산주의 집단의 폭력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

고 빈족의 앞길을 제시해 주는
장이 될 때에 진정한 존재 의
의가 있는 것이다.

국사 교과서는 그 누구의 손
으로부터도 자유로와야 한다.
만약 국사 교과서를 정권의 흥

보물과 동일시한다면 굳이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묶여놓을 이유는 없다. 하루 속히 ‘국정’을 ‘인정’으로 하든가 ‘사관’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 창 균
(사회과 석사과정)

〈사회과 석사과정〉

우리는 흔히들 유구반만년의 문화민족

무엇인가 생각할 때 많은 회의를 느끼게
다. 그 원인으로 나는 우리 국민이 자율,
치의식과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설
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찍이 미국
평민 대통령 링컨은 '나는 40이내 자기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다. 공자가 말한 '사십이불혹(四十而不惑)'
비슷한 의미의 말이 생각난다. 할렐
인의 경우에도 그러하지는 5천년의 역사
치하고라든 해방되지 50년이 가까워 오

그야말로 불혹을 훨씬 넘은 오늘의 현실
최소한의 물질적, 정신적 소득보다는 오라
암담함이 앞설 뿐이다. 그 어느때보다 우
국민의 자을, 자치의식과 이상을 실현하겠
는 강한 실천력이 아쉬울 뿐이다. 그간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자을, 자치의 원리

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불행하게

군자(君子)의 삶

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불행하게
자율적 역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대학은 국내 일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충족을 위해 경기대 중소기업 지원 종합센터, 이른바 KSP의 구축을 위한 거국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이 역시 특정한 몇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인의 불퇴전적 사활을 건 집념이 결집되지 않고서는 소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대학인 전체의 생존권 차원에서 목적의식과 집념을 가지고 추진할 때 가능한 것으로 본다.

특히 지난 한 해는 부정입학문제로 사립 대학은 물론 국립대학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오직 우리 대학만이 부정없는 대학으로 세인의 공

강한 실천력 아쉬워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한 민족이 있고 역사의 제물 노릇을 한 민족이 있는 바 어떤 민족이 역사의 주인

강한 실천력 아쉬워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의 주인 모르는
 는 민족이 있는 민족의 역사를 노릇하
 는 민족이 있고 어떤 민족의 역사의 주인
 영광을 누리고 어떤 민족이 역사의 계승
 권을 잡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명백
 하다. 곧 비전(vision)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보는 눈, 보는
 눈과 마음, 원대한 포부, 커다란 사명인
 이다. 물론 이같은 이성을 이룩하기 위해
 는 무엇보다도 역사, 자치적인 의식과 감
 의의 전달과 책임이라는 운명의 자슬을
 의 원리가 생활화 될 때 가능하다 고 본다.

요즘에 대학가는 여러 책의 책가도

가 논의되고 있다.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 것인지..... 물론 일부는 긍정 혹은 부정 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분명한 사실 이라는 발상의 원인이 대두하게 된 사실에 대한 각자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자기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다할 때 타자 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우 도두 대일이 이같은 현실에 대한 냉평한 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1989년 12월 19일
방자치법 제8차 개정으로 정치적 민주화
법률적 민주화로 이행되고 명년 상반기
에는 단체장 선거를 함으로써 우리의 지

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당사자인 우리대학인은 너무나 침묵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을 계기로 우리자신을 재평가, 재다시하고 명실공히 당당하고 멋진 우리의 참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우리대학의 참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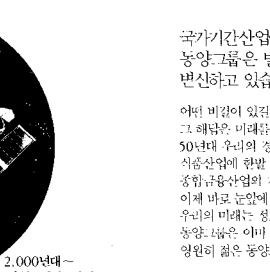
주체적으로 매진해야

이제 우리는 대학설립 50주년을 앞에 두고 전 대학인은 물론 동문회 등이 일체가 되어 대학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대학이 국내 굴지의 대학은 물론 국제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주체적인 그리고 자결, 자율적인 정신을 갖고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서 찾으려는 소인이 되지 말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서 찾으려는 군자의 정신으로 다짐게 대하발전에 노력할 여야 할 것이다.

불합설이 그 어느때보다 파산하게 내려앉아 있는 캄캄한 이 세상에서 무슨 나 자신의 존재를 점검해 본다. "자신에게 등불이 되는 삶을 살고, 진리를 통찰하고 삶이여 한다. (自燈明, 自覺明)"는 석가세존의 임종言葉を 생각해 본다. 그리하여 이같은 삶의 자세가 확실히 때 사회전체가 정화될 수 있리라 믿는다.

동양그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에서 미래정보산업으로—
동양그룹은 발빠르게 미래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길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젊어졌나요?
그 해답은 비결이 없이 살아있는 데에 있었던 겁니다.
50년대 우리의 경제현황이 몹쓸 정도로 빈곤하고 식재료와
식용산업에 한발 앞서 뛰어다니고, 80년대를 이끌었던
중공업·금속산업의 기지를 누구보다 앞서 내걸었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21세기!
우리의 미래는 정보, 유통, 서비스산업에 있습니다.
중앙, 지방은 이와 이러한 서비스산업을 시켰습니다.
영남이 젊은 동양그룹, 계속 수업을 주십시오.

대한민국

동양시멘트·동양제과·동양증권·동양투자금융·동양생명보험·오리온프리트레이·동양매직·동양애운·동양마트·동양창업투자·동양투자자문·동양선물·동양SHL·동양산업기계·동양팩토리·서남재단